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기도하는 방법

시편 77편

크리스 식스 목사

2023년 4월 30일 설교

이번 주에 우리는 6주 설교 시리즈의 두 번째 시편인 시편 77편을 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방법.”

시편 77편은 다윗 왕과 동시대에 살았던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아삽을 예루살렘에서 예배 음악의 인도자로 임명했습니다.

아삽의 일은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를 인도하는 안드레의 일과 비슷했습니다.

아삽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자 편집자였습니다.

그는 시편 12편을 직접 지었고 다윗 왕의 시와 노래를 수집하여 배포했습니다.

아삽의 이름은 ”모이는 자”를 의미합니다.

왕은 그의 노래를 아삽에게 주어 보존하고 연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삽도 선생이었고 그의 자녀들은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500년 후, “아삽 자손”은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서 음악과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아삽의 사역은 그가 죽은 후에도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 시편을 공부할 때 더 의미 있는 시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편 77편을 읽을 때 그 점을 명심하십시오.

음악 감독을 위해; 여두둔을 위하여 아삽의 시편.

1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는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2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찾았고

밤에 나는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은 위로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3 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신음했습니다.

나는 생각에 잠겼고 내 영혼은 회미해졌다.

4 당신은 내 눈을 감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는 말하기에 너무 괴로웠다.

5 나는 오래 전, 옛날을 생각했습니다.

6 나는 밤에 내 노래를 기억했다.

내 마음은 생각했고 내 영은 물었다.

7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겠느냐?”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않을까요?

8 그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느냐?

그의 약속은 항상 실패했습니까?

9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셨습니까?

그가 노하여 공흠을 그치셨느냐?”

10 이에 내가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상소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의 했수.”

11 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 오래전 당신의 기적을 기억하겠습니다.

12 내가 주의 모든 행사를 목상하고 주의 모든 능한 일을 생각하리이다

13 오 하느님, 당신의 길은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14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만민 중에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나이다

15 주의 능하신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16 하나님이어 물이 주를 보고 물이 주를 보고 몸부림쳤나이다

깊은 곳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17 구름이 물을 쏟아붓고 하늘이 우렛소리를 내며

당신의 화살이 앞뒤로 번쩍였습니다.

18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렛소리가 들리고 주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흔들리고 흔들렸습니다.

19 네 길은 바다 가운데로, 네 길은 큰 물 가운데로 인도하였고

당신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지만.

20 주의 백성을 양 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는 함께 이사야 40:8을 읽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은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당신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아삽은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을 들어 보십시오.

1 ”나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2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찾았고

밤에 손을 펴고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우리는 왜 아삽이 ”곤경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질병이나 반항적인 아이에 대해 걱정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재정적 문제가 있거나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시편은 그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 없이 저자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삽의 기도에서 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삽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의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3-6a절을 들어 보십시오.

3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신음했습니다.

나는 생각에 잠겼고 내 영혼은 회미해졌다.

4 당신은 내 눈을 감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는 말하기에 너무 괴로웠다.

5 나는 오래 전, 옛날을 생각했습니다.

6a 나는 밤에 내 노래를 기억했다."

아삽이 여호와를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망에 신음합니다.

깨어 있는 아삽은 누워서 "밤에 그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가버렸던 마음으로 흥겹게 노래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기억은 그의 현재 고통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6b절부터 8절까지에서 그가 다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 보십시오.

6b "내 마음이 묵상하고 내 영혼이 물었다.

7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겠느냐?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않을까요?

8 그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느냐?

그의 약속은 항상 실패했는가?"

아삽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혼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삶은 그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바쳐졌습니다.

아삽의 머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쁜 환경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삽은 "여호와께서 나를 영영히 버리실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8a절에서 당신은 아삽 안에서 끓어오르는 내적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은 영원히 사라진 것인가?"

나는 그 라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실패한 것이냐"고 묻는다.

아삽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것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아삽은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성경에 정직한 씨름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정직성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초청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아삽은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9”하느님께서 자비를 잊으셨습니까?

“그가 노하여 공흠을 그치셨느냐?”

아삽은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그를 돕는 것을 잊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삽의 고통을 눈치채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무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신이시여...저를 기억하십니까?”

나는 같은 것을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직 거기 있니?”

아삽의 마음은 9b절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가 노하여 공흠을 그치셨느냐?”

아삽은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삽은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까요?

아삽은 자신의 문제가 모두 자신의 잘못인지 궁금해합니다.

내 친구 여러분, 아삽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가지고있다.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할 때 기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어디 계신지 모르는 길 잃은 양처럼 당황합니다.

불안에 휩싸일 때 어디로 달려가나요?

목회자로 일하면서 증독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마약, 나쁜 관계, 음식, 음란물 또는 도박에 증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만두려고 하지만 실망과 불안으로 인해 종종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갑니다.

삶이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해답, 위안 또는 탈출구를 찾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어두운 날이 오면 우리는 아삽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7a”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아니, 그러지 않을거야, 친구.

우리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32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32”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가 또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복음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 아주 어두웠던 날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켜보셨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무고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책감, 죄, 수치심에서 당신과 나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께 쏟아졌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힘든 날에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아삼은 우리에게 기억의 힘을 가르칩니다.

아삼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염려하고 우울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의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삼은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0-11절을 보십시오.

10 이에 내가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상소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의 햇수.”

11 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 오래전 당신의 기적을 기억하겠습니다.”

아삼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손의 햇수”로 가리킵니다.

아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셨습니다.

아삼은 스스로 마음의 초점을 자신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행위로 돌이키게 합니다.

시편 77편 1-9절에 대명사는 모두 “나, 나, 나의”입니다.

그러나 10절부터 20절까지 아삼은 자기 생각을 자기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아삼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담았습니다.

12절을 들어 보십시오.

12 내가 주의 모든 행사를 목상하고 주의 모든 능한 일을 생각하리이다

명상하기 위해 당신은 무언가에 대해 열심히 생각합니다.

당신은 깊고 지속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삼은 1-9절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의 주요 목표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삼의 문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13절에서 아삼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에 설교하기 시작하는지 들어 보십시오.

13 ”오 하나님, 당신의 길은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삼은 여기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숭배하는 거짓 신 중에 야훼처럼 숭배하는 신이 있느냐?

당연히 아니지.

아삼은 14절과 15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기도합니다.

14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만민 중에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나이다

15 주의 능하신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아삽은 자신의 문제만 생각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는 초점을 바꾸어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대해 자신에게 설교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삽은 16-20절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아삽은 거기에 없었지만 그는 그 사건을 묵상합니다.

그는 16-17절에서 그것이 어땠는지 아주 자세하게 상상합니다.

16 "하나님이여, 물이 주를 보고 물이 주를 보고 몸부림쳤나이다

깊은 곳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17 구름이 물을 쏟아붓고 하늘이 우렛소리를 내며

네 화살이 앞뒤로 번쩍었다."

출애굽 사건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길을 열어 바로의 군대를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시나이 사막에서 그의 백성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여행하셨습니다!

나는 시나이 사막에 가본 적이 있는데 홍해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40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어둡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백성을 돌볼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대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삽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아삽은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9-20절을 보십시오.

19 "네 길은 바다 가운데로, 네 길은 큰 물 가운데로 인도하였으니

당신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지만.

20 주의 백성을 양 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당신은 아삽이 이 마지막 줄을 기도하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감정과 씨름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시편 77편이 하루아침에 아삽에게 일어난 마음의 변화를 묘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며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번에 아삽과 같은 기분이 들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77편의 시작 부분을 현재 시제로 읽어 보십시오.

“나는 하느님께 도와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밤에 내가 지치지 않고 손을 벌리지만 내 영혼은 위로 받기를 거절합니다.”

당신의 슬픔과 혼란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그분께 기도하도록 당신을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면 주의를 10-11절로 옮겨 자신만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10 이에 내가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상소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의 햇수.”

11 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 오래전 당신의 기적을 기억하겠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는 주님의 몇 가지 행사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기억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삼보다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읽고 또 읽을 수 있는 간증과 이야기로 가득 찬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가장 위대한 행위인 우리 구주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 사건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의 종노릇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형제 아삼은 3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어려울 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삼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상에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것을 그에게 말하십시오.

자신과 하나님께 정직하십시오.

버림받고, 화가 나고, 혼란스럽다고 그에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자신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 최근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성경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절:

12 내가 주의 모든 행사를 목상하고 주의 모든 능한 일을 생각하리이다

목상하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의 고통과 죽음은 당신을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해방시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이 가능하고 실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진리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 그들에 대해 노래하고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도 아삽 형제처럼 의심과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성경에 기록된 당신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하신 최고의 일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하고 가장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와 수치의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결코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힘든 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